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57〉

諸賢頌句 (제현송구) ④

逃生脫死勤成佛 莫待明朝與後朝
도생탈사근성불 막대명조여후조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든 부지런히 부처이루라 내일 아침, 모레 아침을 기다리지 말지어다

慈受禪師訓童行
자수선사 훈동행

世諦紛紛沒了期 空門得入是便宜
세체분분몰요기 공간득입시편의

세간의 도리는 잡되고 어지러워 마칠 기약이 없다 공문에 드는 것이 마땅히 옳고 편하다

直須日夜常精進 莫只勞勞空過時
직수일야상정진 막지로로공과시
燒香禮拜莫忽忽
소향예배막홀홀

모름지기 밤낮으로 늘 정진하고 다만 억지로 시간을 허송하지 말라 향 사르고 예불하기를 소홀히 말라

目覩心存對聖容
목도심존대성용
懺悔多生塵垢罪 願承法水洗心胸

"생사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정진하고 여러생 티끌처럼 쌓인 죄업 참회하라"

참회다생진구좌 원승법수세심흉

눈으로 보되 마음에 두어 부처의 모습을 대하라

여러 생동안 티끌처럼 쌓인 죄업을 참회하고 원컨대 법수를 받아 마음을 씻을지어다

也要學書也念經 出家心地要分明
야요학서야념경 출가심지요분명
他年圓頂方袍日
타년원정방포일

또 종요로이 글을 배우고 경을 마음에 새겨서 출가한 마음자리를 분명케 하라

어느해에 머리깎고 가사장삼 걸치는 날에

事事臨時總現成
사사임시총현성
一等出家爲弟子 事師如事在堂親
일등출가위제자 사사여사재당친

일마다 때를 맞춰 모두 이뤄지리라

일등으로 출가하여 제자가 될진대 스승 섬기기를 집에있는 어버이 섬기듯하라

添香換水須勤愼 自有龍天鑑照人
첨향환수수근신 자유용천감조인
廊下逢僧須問訊
랑하봉승수문신

향 꺼트리지 않고 다기물 갈며 모름지기 부지런하고 삼가하라 네 마음 가운데 천·룡이 있어 너를 거울처럼 비추나니라

낭하에서 스님을 만나면 모름지기 캐어묻고

門前過客要相呼
문전과객요상호
出家體態宜謙讓 莫學愚人禮數無
출가체태의겸양 막학우인예삭무

문앞에 과객있거든 서로 호응해 보라

출가한 이의 몸가짐은 마땅히 겸양이어야 하니 어리석은 이 자주 예법이 어긋나는 것을 닮지 말라

出家不斷葷和酒 枉在伽藍地上行
출가부단훈화주 왕재가람지상행
到老心田如未淨
도노심전여미정

출가하여 마늘·파등 냄새나는 채소와 술을 끊지 않으면 절땅을 밟고 다님에 그릇됨이 있다

늙도록 마음밭이 깨끗치 아니하면

菩提種子亦難生
보리종자역난생
莫說他人短與長 說來說去自招殃
막설타인단여장 설래설거자초앙

보리 종자가 또한 나기 어려우니라.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라 말이 오고 가매 스스로 재앙을 부른다

若能閉口深藏舌 便是安身第一方
약능폐구심장설 변시안신제일방
色身健康莫貪眠
색신건강막탐면

만약 능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곧 이것이 몸을 편케하는 제일 방편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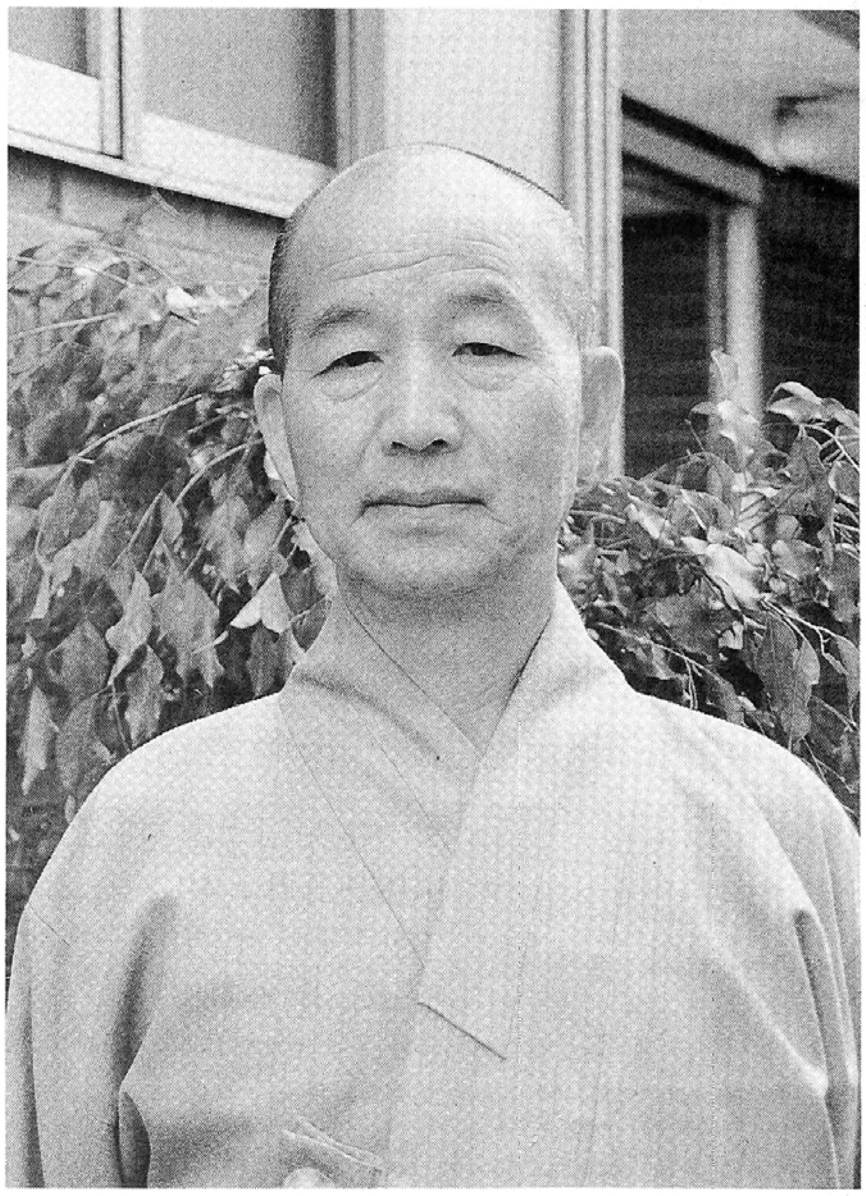
색신이 건강할때 잠자기를 탐하지 말라

龍眼

가정의 달 지상법석

"은혜는 갚아야 할 빚

정무스님 〈보적사 주지〉



약력
- 31년 전북 옥구 生
- 전북대 졸업
- 58년 전강스님 은사로 봉은사서 득도
- 직지사 강원 졸업
- 72년 용주사 주지 역임
- 87년 신륵사 주지 역임.

푸른 5월, 이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날이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린이 날과 부처님 오신 날도 이 달에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5월을 맞아 오늘은 사람이 사는 도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보은(報恩)의 도리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 그것은 은혜를 갚는 과정이고 은혜를 입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생의 윤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세에 이미 수많은 은혜를 입었고 금생에서도 알게 모르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과거에 입은 것이건 지금에 입는 것이건 은혜는 빨리 갚아야할 빚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은혜를 다 갚아버리면 우리는 이미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할일을 다한 자리에서 우리는 보살이되고 성불의 바탕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는 크게 네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보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 국가의 은혜, 동포의 은혜입니다. 삼보의 은혜는 불법승 삼보와 스승의 은혜를 두루 포함하는 것이고 부모의 은혜는 지금 이 몸을 낳아주신 부모 뿐아니라

"요즘 교육이 보은을 가르치기보다 자유와 권리 신장에만 치우치다 보니 사회문제 심각해집니다"

과거 수겁 동안의 부모에게 입은 은혜이며 국가의 은혜는 나라가 있음으로 내가 입는 모든 혜택에 대한 것이고 동포의 은혜는 내 삶의 도반들인 이웃과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재한 것은 다 이 네가지의 은혜가 있어서 입니다. 이 은혜가 자신의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알게하고 그것을 갚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교육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육은 은혜를 알고 갚게 하기 보다는 자유와 권리의 신장에 너무 치우쳐 있어 많은 사회 문제를 불러 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가 천지만물을 위해 나왔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서양식 교육은 천지만물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기심만 길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불법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한몸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야 참된 교육이고 좋은 세상 가꾸는 일일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부모님 은혜 갚는 일입니다. 온 중생이 다 내 부모이고 형제입니다. 과거세를 인정하고 윤회의 이치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중생도 언젠가는 내 부모였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효를 강조하는 불교의 입장이 일반 윤리나 유교와 다른 것입니다. 이 생에서만 효행하라고 가르치기 보다는 과거세의 부모(일체중생)와 이생과 내생의 부모에게까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부모님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이를 설명한것이 바로 〈부모은중경〉입니다. 이 경전은 매우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부모은중경〉은 다생부모 십종대은을 열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뱃속에서 지켜 주신 은혜인데 잉태의 순간 이전의 여러생에 걸친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몸을 조심합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 하고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아이를 위해 태교하니 그 은혜를 누가 작다 하겠습니까. 다음은 나으실때 고통 받으신 은혜입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나보다 여러 어머니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요즘 생일풍속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생일날은 저가 태어난 날이기 앞서 어머니가 고생하신 날 아닙니까. 그런데 저 홀로 태어난 것인양 생일날 제가 미역국 먹고 제 친구들과 파티하고 즐기며 오히려 어머니 음식하는 수고를 더 해주고 있으니 잘못됐다는 겁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란 노래도 바꿔야 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고에 감사합니다'라고요. 생일날이 되면 제가 좋아하기에 앞서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계시면 큰절을 올리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세번째 은혜는 낳고서야 근심을 잊어 버리시는 것이고 다음은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은 뱉어 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기본 욕구중의 하나가 먹는 것인데 어머니는 그것마저 마다하고 맛난 것 자식에게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과	수업연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모집 완료 •통신 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0명 •야간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0명 •통신 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4월 26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화불교대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중국 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수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침, 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기 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중풍, 당뇨병, 좌골 신경통, 침치료, 기공 등
■연 수 후 : 박사과정 연수수료증 수여
■인 원 : 15명 이내
■출 발 일 : 1996년 6월 4일 (화요일)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 511-2026~8

법화경무료특강

한국승가 대학원에서는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산에서 아래와 같이 〈법화경 무료특강〉을 실시 하오니 법화경에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5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정각
■ 장 소 : 부산지하철 교대역앞 〈국제신문 4층 강당〉
■ 법 사 : 최공덕스님 (법화경교단법주)
■ 동 참 : 불교의 진실을 알고 싶은 모든분
■ 문 의 : ☎ (051) 645-6224

※ 전화로 동참을 예약하시는 선착순 200명에는 법화경(싯가 3만원)과 도덕교재, 황수련시집등을 선물로 드립니다.

한국승가대학원
부산강의실

책임교수 오종법사 최공덕